

## <<유치부>>

# 제 11 과 하느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요

### » 학습 목표

1. 우리는 모두 하느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임을 안다.
2. 예수님을 닮은 어린이가 되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한다.

### » 준비물

어린이 교재, 필기도구

### » 시작기도

† 성호경

어린이들의 친구이신 하느님, 오늘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교리하면서 하느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 » 도 입

- 소요시간 : 약 5분

#### \* 이야기 나누기

친구들! 지난 한 주일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가워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옆에 누가 앉아있지요?(어린이들의 대답을 듣는다.) 그래요. 친구가 앉아있어요. 친구의 손을 꼭 잡아볼까요? 이번에는 친구를 안아줄까요? 이번에는 친구에게 ‘사랑해~’라고 이야기해 볼까요? 모두 잘 했어요. 오늘은 우리 옆에 있는 친구,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 거예요.

## 1. 본문 그림 이야기 나누기

### ♣ 교재 50-51쪽

\* 교재 50-51쪽을 보며 하느님께서 소중한 친구를 주셨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피부색이 다양한 친구들이 함께 전통놀이를 즐기는 그림을 보며 다문화 가정 어린이나 외국인 어린이도 우리의 친구이자 이웃임을 설명한다.

친구들! 그림을 보세요. 어떤 그림인가요? 예수님과 친구들이 윷놀이를 하고 있어요. 친구들은 윷놀이를 해본 적이 있나요?(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해본 친구도 있고 해보지 않은 친구들도 있네요. 윷놀이는 막대기를 던지면서 점수를 내는 우리나라의 전통 놀이예요. 전통 놀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놀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놀이라는 뜻이에요. 그림을 하나씩 살펴보아요.

#### \* 설명의 예시

놀이를 하는 친구들을 살펴보을까요? 어떤 친구들이 있나요?(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래요. 예수님도 계시고, 윷을 던지는 친구도 있고 판에 말을 놓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각각 다르지요. 머리가 노란 친구도 있고 피부색이 다른 친구들도 있어요. 생김새는 다르지만 모두 함께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모두 함께 우리의 전통 놀이인 윷놀이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즐겁게 놀 수 있어요. 생김새는 달라도 우리는 모두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친구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 친구들을 만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셨어요. 하느님이 뭐라고 알려주셨는지 아래에 있는 성경 구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 51쪽 하단에 있는 성경 구절을 함께 읽고 마무리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마르코 복음 12장 31절)

하느님께서 우리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알려주셨어요. 우리 지난번에는 내가 하느님께, 그리고 엄마 아빠께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배웠지요. 그렇게 내가 소중한 만큼 내 이웃, 친구들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을까요?

## 2. 예수님께서서는 이웃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해요.

### ♣ 교재 52쪽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어린이들과 제목을 읽는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웃을 사랑하셨대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어린이가 되어야 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어린이들의 대답을 듣는다.) 그래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셨는지 살펴보아요!

#### \*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림

예수님께서서는 이웃과 음식을 나누어 드셨어요. 제자들과 밥을 드실 때에도 항상 음식을 나누어 드셨지요. 음식이 없을 때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배불리 먹게 하시는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함께 나누어 먹는 기쁨을 느끼게 해 주셨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친구와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어요. 맛있는 간식을 나누어 먹기도 하고, 함께 밥을 먹기도 해요.

#### \* 아픈 사람들 돌보는 그림

예수님께서서는 아픈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꼭 병을 고쳐주셨지요. 눈이 먼 사람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셨고, 중풍 같은 무서운 병에 걸린 사람도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우리는 친구를 나올 수 있게 해줄 수는 없지만 아픈 친구를 도와줄 수는 있어요. 친구를 부축해준다거나 가방을 들어주고 함께 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서는 이웃을 사랑하셨어요. 기쁠 때도 이웃과 함께 하였고, 힘들고 아픈 이웃이 있으면 돌보아주셨어요.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우리 어린이들은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해요. 우리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에게도 친절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고 지금 우리와 만날 수는 없어도 함께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전해야 해요. 어떤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함께 생각해 보아요.

## 3. 누가 우리의 이웃일까요?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 ♣ 교재 53쪽

누가 우리의 이웃일까요?(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래요. 지금 우리 옆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또 같이 교리를 하고 있는 선생님도 이웃이지요. 또 유치원에 함께 다니는 내 친구들도 이웃이지요. 또 우리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 슈퍼 아저씨는 어떨까요? 스티커를 붙이며 이야기해 보아요.

- 스티커 붙이는 활동을 하며 우리의 이웃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모두 알맞은 자리에 스티커를 붙여 보았나요? 어떤 이웃들이 있지요?(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래요. 우체부 아저씨, 선생님, 슈퍼 아저씨, 친구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 않은 친구들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에요.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서 함께 살도록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야 해요. 이웃이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며 살아야 해요.

#### » 마무리

오늘 우리는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교리를 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만날 수는 없어도 같이 자라나고 있는 친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생김새는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모두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소중한 친구들이에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웃과 친구를 사랑하고 아껴주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에게 다정하게 대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워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인 예수님, 하느님과도 친하게 지내는 어린이가 되어야 해요.

#### » 미침기도

† 성호경

하느님, 오늘은 우리의 소중한 친구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소중한 자녀인 만큼 우리 친구들도 하느님의 소중한 자녀임을 알고 다른 친구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